

2021 SDGs
시민온라인 독서 교육
‘읽고 제안하기’



2021 SDGs
시민온라인 독서 교육
‘읽고 제안하기’



Contents

Part 1 07

필독 도서 (18권)

Part 2 13

우수 제안 20선

Part 3 49

제안 모음 32개

Part 4 81

우수 제안 선정 회의

Part 5 87

도서 선정 회의

Part 6 91

‘읽고 제안하기’ 참여자 명단



사업취지 및 목적

- 환경보전 및 사회, 경제, 문화를 통합하는 교육을 독서 교육을 통해 시민, 공무원, 기업, 사회단체의 전문가를 양성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책 참여형 온라인 학습 토론 유도
- 독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전문가 양성하고 실천과 지속가능발전 인식 확산 유도
- 기업, 학교, 사회문화 단체 등에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통해 창원형 지속가능발전 교육 역량 강화를 통한 정책 제시형 교육
- 비대면 시대에 따른 온라인 학습을 통한 창원형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인식 확산

사업개요

- 기 간 : 2021년 10월 ~ 12월
- 주요내용
 - 지속가능한 창원 만들기 도서선정 위원회 구성
 - 환경, 사회, 경제, 문화 등 17개 목표 분야별 전문가 선정
 - 비대면 온라인 교육 시스템 시범운영

추진계획

- 목 표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와 인식 확산
 - 창원형 지속가능발전목표 시민 제안

○ 추진일정

사업내용	시기	비고
- 사업추진 세부계획 수립 - 단체, 기관 협력체계 구축 - 지속가능발전 교육 도서 선정위원회 구성	9월	지역대학 및 단체, 교육청, 프로그램개발 전문업체
- 비대면 독서 교육 운영 방안 논의	9월	
- 비대면 독서 교육 홍보 및 안내	10월 4일~10월 14일	

사업내용	시기	비고
- 비대면 독서 교육 참가신청 접수	10월 13일~ 24일	
- 비대면 독서 교육프로그램 운영	11월 1일~ 30일	
- 보고서 (제안 의견서) 제출 및 심사	12월	

SNS 홍보 카드뉴스



01 지속가능창원을 위한 책 읽Go 제안 하Go

- ✓ 연령별 도서 목록 중 **한권**을 선택
- ✓ 배송된 책을 읽고, **미션수행!**
정책 제안 및 실천 다짐
- ✓ 우수 제안자 에게는 **지역 사랑 상품권 증정!**

02 책 읽Go 제안 하Go 도서 목록

1. 초등 저학년	도서	작가
	지구를 구하는 쓰레기 제로 대작전	시마 외조간
	하늘이 딱딱했대?	신원미
	그래타 룬베리가 외쳐요!	자넷 윈터

2. 초등 고학년	도서	작가
	내 스마트폰이 아프리카에 있대요	양혜연
	코끼리는 러면 인돼요?	공주영
	도시에서 만난 야생 동물 이야기	정행길

3. 청소년 (중고등)	도서	작가
	지구를 살리는 특별한 물건 10	박경와
	지구의 내일을 부탁해!	일본사단법인 Think the Earth
	환경과 생태 줄 아는 10대	최원영

03 책 읽Go 제안 하Go 도서 목록

4. 일반 (성인)	도서	작가
	공기 파는 사회에 반대한다	장재연
	세상에 나쁜 곤충은 없다	안네 스페르드루프-튀게슨
	나는 필요로했고, 지구는 달라졌다	오프 자현
	이러다 지구에 플라스틱만 남겠어	강신호
	지구 한계의 경계에서	요한 록스트럼, 마티아스 클룸
	나무의 언어	귀도 마나 디 소스피로
	바닷마을 인문학	김준
	쇠나우 마을 발전소	다구치 리오

2021 SDGs
시민온라인 독서 교육
'읽고 제안하기'

Part 1.

필독 도서 (18권)



Part 1.

필독 도서 (18권)

1. 초등(저)

연번	도서	작가	내용
1	지구를 구하는 쓰레기 제로 대작전	시마 외즈칸	《지구를 구하는 쓰레기 제로 대작전》은 글쓰기가 직접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들과 쓰레기 제로 운동을 계획하고 실천하며 만든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들의 쓰레기 제로 운동이 더욱 생생하게 다가오지요. 지구 곳곳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예요. 집과 학교에서 분리수거도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을까요? 사람들이 플라스틱을 만드는 양은 이미 지구가 플라스틱을 처리하는 능력을 넘어섰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플라스틱이 재활용되지 않는 데다, 재활용을 하려면 또 다른 재료와 깨끗한 물을 낭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쓰레기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 책의 어린이들이 말하고 있지요. 《지구를 구하는 쓰레기 제로 대작전》의 날처럼 ‘쓰레기는 어디로 가는지’ 고민해 보면, 우리는 모두 함께 살아가는 지구별의 주민이라는 걸 깨닫게 되지요. 《지구를 구하는 쓰레기 제로 대작전》을 읽고 생활 속에서 꾸준히 쓰레기 제로를 실천해 보세요. 쓰레기가 없는 쓰레기통을 만날 수 있어요. 아마 데니즈도 처음에는 교실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딸기잼 병 하나 정도로 줄어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을 거예요. 쓰레기를 줄이는 우리의 실천이 지구의 미래를 건강하게 만들 거예요!
2	하늘이 딱딱했다?	신원미	학교종이땡땡땡 10권. 갑자기 생긴 ‘딱딱한 하늘’ 때문에 마음대로 하늘을 날 자유를 빼앗긴 새들의 이야기를 담은 동화입니다. 숲속 새들이 언제부터인가 하나둘씩 다치기 시작했어요. ‘딱딱한 하늘’ 때문이었죠. 새들을 위협하는 ‘딱딱한 하늘’은 사실 사람들이 숲속에 세운 ‘유리 집’이었어요. 투명해서 새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유리에 부딪혀 다치게 된 것이지요. 새들은 무시무시한 ‘딱딱한 하늘’에 계속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딱딱한 하늘’을 물리칠 방법을 궁리합니다. 숲속 새들은 예전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닐 하늘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3	그레타 툰베리가 외쳐요!	자넷 윈터	그테타 툰베리가 2019년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중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 중 하나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툰베리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2019 올해의 인물'에 선정된 것뿐만 아니라, 2019년 3월에는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른바 있고, 국제앰네스티 양심대사상을 비롯해 '대안 노벨상'으로 불리는 바른생활상을 수상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살고 있는 그레타 툰베리는 15살이던 2018년 8월 20일 어느 금요일, 학교 대신 스톡홀름의 스웨덴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시위를 했다. 그 이후 지금 당장 행동하라는 그의 외로운 외침이 시작된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금요일 등교거부 운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2019년 3월 15일 전 세계의 금요일 행진으로 이어졌다. 이 책은 툰베리가 어떤 과정과 마음으로 등교거부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지, 전 세계 사람들과 절망 대신 행동을 먼저 하자는 연대와 공감의 끈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생생하게 그려낸 그림책이다.
---	---------------------	-------	--

2. 초등(고)

연번	도서	작가	내용
1	내 스마트폰이 아프리카에 있대요	양혜원	『내 스마트폰이 아프리카에 있대요』는 '지구를 살리는 어린이'의 아홉 번째 책으로, 새날이네 가족을 중심으로 전자 쓰레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	코끼리를 타면 안돼요?	공주영	『코끼리를 타면 안 돼요?』는 로컬 푸드, 공유 경제, 공정 무역, 사회적 기업, 소비자 협동조합 등 착한 소비와 관련된 8가지 주제를 여덟 나라의 이야기로 담은 어린이 교양서다. 어린이들에게는 다소 막연하고 묵직한 주제일 수 있지만, 작가는 각 나라의 어린이를 화자로 이야기로 풀어내 어린이 독자들도 친근하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은 우리 일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소비가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려주고, 어린이들도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3	도시에서 만난 야생 동물 이야기	정병길	이 책은 도시에서 만난 열두 동물의 생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생태 감수성을 일깨우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야생 동물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생태적 도시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다친 야생 동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에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고, ‘동물 카페’의 문제점, 투명한 건물이 새를 다치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도 살펴봅니다.
---	-------------------------	-----	---

3. 청소년(중고등)

연번	도서	작가	내용
1	지구를 살리는 기발한 물건 10	박경화	저자는 환경 역습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곰곰 돌아봐야 할 것은 바로 그간 무심코 사용해온 일상 속 물건들이라고 말한다. 수십억 지구인들이 “어떤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지구와 인간의 행복한 공존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 책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물건들 중 지구를 살리는 기발한 물건은 무엇이고, 이 물건들이 어떤 방법으로 지구를 살리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담아냈다. 물건과 관련 있는 환경문제, 미처 몰랐던 물건의 성분과 그 유래에 얽힌 이야기, 이 물건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인간과 지구가 공생하기 위한 바람직한 물건 사용법 등을 실제 일어난 사건, 다양한 연구 자료를 근거로 소개하고 있다.
2	지구의 내일을 부탁해!	일반사단법인 Think the Earth	이 책은 지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바꾸기 위해 유엔이 정한 17개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개념과 그 목표를 현실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다양한 개인과 단체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SDGS를 처음 접하는 어린이, 청소년에서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SDGS의 원리를 이해하고 나아가 지구의 미래를 바꾸는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길을 열어 줄 것이다.

3	환경과 생태 쫓 아는 10대	최원형	《환경과 생태 쫓 아는 10대》는 현대인이 쉽고도 흔하게 행하는 여덟 가지 소비 장면을 포착하여, 나의 소비가 어느 계층의 누구에게, 어디에 있는 어떤 생물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했다. 고등 교육 과정에서 과학 교과가 여러 학문이 융합된 통합과학 형태로 바뀌었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환경?생태와 연결된 사회 문제를 입체적으로 다룬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현대인의 주된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소비'라는 행동을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환경 변화와 잇는 시도를 한 것이다. 이로써 점과 점, 선과 선으로 이해하고 있던 세상이 다양한 층위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세상을 유기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	--------------------	-----	--

4. 일반(성인)

연번	도서	작가	내용
1	공기 파는 사회에 반대한다	장재연	1988년 서울시 미세먼지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한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한 이후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 문제를 꾸준히 연구함과 동시에 30년 넘게 환경운동을 이어온 장재연 교수의 『공기 파는 사회에 반대한다』. 2019년 현재, 우리 생활 깊숙이 미세먼지가 들어와 있다.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Ⅳ)' 보고서에 따르면 각종 위험에 대한 불안수준 중 가장 높은 항목으로 '미세먼지 등과 같은 대기오염'이 뽑혔고, 다양한 미세먼지 관련 상품과 문화현상은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의 극명한 공포를 보여준다. 저자는 정부부처, 언론, 학계, 기업 등이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 현상의 원인이 되었거나 기여했다고 지적하며 잘못된 정보에 대한 믿음과 확산을 미세먼지 천동설에 비유한다. 기업은 공포마케팅을 통해 각자가 스스로를 보호하라고 권하고, 학계는 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연구 대신 성능 좋은 마스크, 공기청정기 개발과 오염의 측정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미세먼지에 관해 잘못 알려진 인식을 구체적 데이터와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한편, 미세먼지를 둘러싼 일련의 상황을 사회현상으로 바라보고 과학의 외피를 쓴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들이 어떻게 생산되고 확산되는지 짚어본다.

2	세상에 나쁜 곤충은 없다	안네 스베르드루프 -튀게손	『세상에 나쁜 곤충은 없다』는 밀리미터 단위에서 펼쳐지는 곤충의 독특한 생활사와 놀라운 성취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농사짓고 가축 치는 재미, 노래로 먹이를 유인하는 베짚이, 은하수를 따라 걷는 쇠똥구리, 동료에게 기술과 전략을 가르치는 벌을 보며 경이와 감탄을 연발하는 사이, 곤충에 대한 시선은 어느새 다정해진다. 그리고 이 작고 이상하고 복잡하고 웃기고 희한한 존재들이 보이지 않게 세계를 움직인다는 사실에서, 지구는 엄연한 곤충의 행성임을 깨닫는다.
3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	호프 자런	여성 지구과학자가 풀어내는 자신의 삶과 지구, 풍요에 관한 이야기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는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위협과 두려움에 관한 책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누려왔고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삶에 관한 이야기이다. 원제 'THE STORY OF MORE'가 암시하듯 이 책은 더 많이 빨리 소비하는 생활이 만들어낸 심각한 문제들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더 안전하고 편리해진 삶, 나아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리는 풍요로운 삶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우리는 어떻게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지구 환경의 지속성을 망치지 않을 수 있을까? 호프 자런은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지구의 변화를 이야기하기 위한 주요 소재로 호프 자런이 선택한 것은 바로 자신의 삶이다. 《랩 걸》을 통해 과학자-여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현재형의 삶을 탁월하게 그려냈던 저자가 이번에는 과학적 사실과 역사, 자신의 삶을 유려하게 엮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그로 인해 위태로워진 행성 사이의 연결고리를 밝힌다. 견고한 사실과 수치에 기초해 있지만 따듯한 유머가 빛을 발하는 글을 통해 독자를 새로운 이해, 즉 모두가 충분히 풍요로울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새로운 사유로 초대한다.
4	이러다 지구엔 플라스틱만 남겠어	강신호	이 책은 플라스틱이라는 물질의 A부터 Z까지 완전히 해부하는 동시에, '플라스틱 사회'를 유지시키는 시스템까지 신랄하게 분석한다. 탄탄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지금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하고 실현 가능한 재활용 대책을 내놓는다.

5	지구 한계의 경계에서	요한 록스트림, 마티아스 클룸	최근 인간이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느니 인공지능에 인간이 지배당한다느니 하는 우려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리고 지구 말고 인간이 살 만한 행성을 찾아나서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려온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지구가 건강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거나 그것도 아니면 지구가 병들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중요한 바는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이 저지른 일이라는 사실이다. 즉 인간 스스로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 했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인간이 아프리카 일부에만 몰려 있다가 지구 전체로 확산되어 살게 된 것은 불과 1만 년 전부터 지구 기후가 간빙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이 기간이 바로 인간이 살기에 기후가 가장 적합한 홀로세다. 저자에 따르면 이때부터 아무리 기후가 변덕스러웠다 하더라도 기온 변화가 섭씨 1도밖에 차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
6	나무의 언어	귀도 미나 디 소스피로	세상에서 가장 오래 된 나무, 주목(朱木)의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인류의 역사와 밀접하게 얽힌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 작품은 주목의 탄생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굉장히 긴 시간을 담고 있다. 어린 시절의 주목은 벌레들과 사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어머니 나무가 생을 마쳤을 때 그녀는 30년간 애도에 잠긴 채 성장을 멈춘다. 하지만 곧 그녀는 딱갈나무들이 숲을 은밀히 침범해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알아채고 작전을 개시한다. 화학전의 비밀을 터득하고는 자신의 몸에서 만들어낸 독소로 침입자들을 물리치는 것이다. 숲의 여왕인 그녀는 마구잡이로 나무가 베어지는 모습을 두려운 눈으로 목격하고, 자신 또한 인간에 의해 쓰러지지만 결국 땅속뿌리에서 다시 싹을 피워 살아난다. 작가의 남다른 철학적 사고를 기반으로 쓰인 주목의 삶은 인간의 삶과 함께 대조되어 그려짐으로써 인간의 본성과 역사를 보다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7	바닷마을 인문학	김준	바닷마을에 사는 사람들에게, 바닷마을에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농촌으로 귀촌한 사람들을 위한 인문서는 많지만 어촌과 어민의 삶을 이야기하는 인문서는 찾기 힘들다. 그렇다고 이 책이 어촌으로 귀촌하려는 사람을 위해 쓴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도시민에게 어촌의 존재를 알리고 싶었다. 이들이 어촌의 가치에, 갯벌의 가치에, 섬마을의 가치에 공감한다면, 이후 골목 시장에서 마주치는 바지락이, 마트에서 마주하는 김이 다르게 보일 것이다. 바닷가 여행을 하다가 만나는 어민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넬 수 있을 것이다. 그 시선이, 따뜻한 한마디가 어민들에게 큰 힘을 줄 수 있고, 어촌을 변화시킬 수도 있으리라.

8	쇠나우 마을 발전소	다구치 리호	독일에서 태양광 전지 밀도가 가장 높은 마을 쇠나우.햇빛발전장치를 얹지 않은 지붕을 찾아보기 어려운 도시. 덕분에 쇠나우는 오래전부터 독일의 태양광 수도로 불려 왔다. 마을과 가까운 '검은 숲' 바람농장에서는 풍차 5기가 돌며 15,000가구에 공급할 전력을 만든다. 규모가 큰 건물들에는 대부분 열병합발전장치가 들어서 있다. 마을에서 필요한 에너지는 마을이 생산한다. 쇠나우는 작지만 올찬 마을 발전소이자,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생태 전력 회사가 자리한 곳이다. 쇠나우전력회사는 20만이 넘는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며 독일 전역의 생태 시민 발전소 2,700곳을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을 고민하는 많은 이들이 해마다 쇠나우를 찾아 길을 묻는다. 인구 2500명, 울창한 숲 속 조그만?시골 마을이 전 세계 대안 에너지 운동의 중심이 되기까지, 쇠나우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9	제프리 삭스 지리 기술 제도	제프리 삭스	제프리 삭스는 인류가 지금으로부터 7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발원해 다른 대륙으로 흩어진 이래, 인간 사회의 교역, 정복, 건국, 생산력 증대, 전염병 창궐 등 모든 활동이 '지리, 기술, 제도' 세 가지 요소를 토대로 이루어졌음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 과정, 즉 지역과 지역, 사회와 사회 사이의 상호작용을 농경, 항해술의 보급, 디지털 혁명 등을 기준으로 일곱 시대로 구분해 문명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했다. 정보기술과 교통수단의 발달은 세계의 상호의존성과 상호이해를 높여왔고, 코로나19와 기후변화는 인류가 연결되어 있음을 확실히 인식하게 했다. 《지리 기술 제도》는 단순히 어느 한 나라만의 움직임으로 개선할 수 없는 공통의 위기를 맞이한 인류에게, 지나간 교류의 경험을 일깨워 더 나은 내일을 암시하는 역사서이자 미래 지침서다.

※ 자료참고 : 네이버 책 참조

2021 SDGs
시민온라인 독서 교육
'읽고 제안하기'

Part 2.

우수 제안 20선



Part 2. 우수 제안 20선

번호	제안명
1	그물주머니(프로듀스 백) 사용해 장보기
2	기후환경도시 창원형 제로에너지주택 스마트홈 시스템 지원사업
3	나의 인생 나무”를 가진 초등학교 1학년
4	놀이만 하는 공원 말고 신기방기한 환경공원
5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에너지를 모아모아~!
6	배달음식 용기 세척 및 재사용 정책 활성화
7	빛 공해로 인한 인공조명 제한하기
8	시민의 힘으로 창원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
9	아이들의 야외 도서관을 만들어 주세요
10	아이스팩 수거함과 우유팩 수거함을 만들자
11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쓸만한 장난감을 버리는 공간을 마련.
12	용기 내는 당신이 환경 살리미(살림-ing)!
13	전자 쓰레기 추적 보도
14	지구를 위한 행동, 쉽게! 편하게! 습관처럼!
15	창원시 수목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및 인공구조물 현황 관리체계 구축
16	창원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17	창원시 해양(진해만, 마산만) 교육 활성화
18	창원시 행사 및 알림 서비스
19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놀이터)를 만들자
20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누비자 마일리지

※ 순서는 가나다순

우수 제안 1

1. 제안명(주제)

그물주머니(프로듀스 백) 사용해 장보기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창원시 내 대형마트 및 일반마트, 시장 이용시 장바구니를 이용하지만 애초에 상품이 포장되어있는 경우가 많음. 장본 후 집에서 정리해보면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이 발생함
처음부터 포장을 하지 않는다면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음. 하지만, 물품을 개별적으로 담아올 경우 장바구니 내에서 물건이 섞이거나 같은 제품을 여러개 구입하였을 때 하나하나 짚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어 그물주머니(프로듀스 백)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음

3. 제안 내용

※ 대상(주요 수혜자 및 수혜 내용 설명)

창원시민 100명 (신청을 통해 사이즈별로 1인당 3장씩 지급함)

-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자가 많아 지급받지 못한 참가자에 한해서 지역 내 제로웨이스트 샵에서 500원~1000원 할인받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사용 후기 등에 대한 증빙사진 또는 개인 SNS에 정책홍보글 게시요망

※ 기존과 차별성(타 시도 유사 사례)

환경부, 경기도, 서울 등에서 최근 유행한 용기내 챌린지와 유사(용기내 챌린지는 음식구입시 일회용품이 아닌 다회용품에 포장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현재 창원시에서 개인카페들과 협력해 진행하고 있는 텀블러 사용시 할인과 유사함 제조 음식 및 음료가 아닌 청과구입으로(장보기에 활용가능한) 차별성이 있음

※ 추진 및 방법 등 사업 실현 가능성

창원시민들이 지역 내 대형 및 일반마트 및 시장(청과가게)등에서 다회용 그물주머니를 이용해 청과를 구입시 할인혜택을 제공함(100원~500원) - 창원시가 개인카페와 하는 텀블러 할인과 유사 지역 내 대형 및 일반마트 및 시장(청과가게)등에 다회용 그물주머니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함
- 플라스틱 포장 및 일회용 비닐사용을 줄일 수 있음

4. 나의 실천 다짐

※ 앞으로의 다짐

그동안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장바구니 사용을 일상화 했으나 실제로 장을 보고 와서 정리를 하면 포장용품이 많이 나왔음. 하지만 스스로 장바구니 사용한 것에 대해 환경오염을 줄였다고 생각하고 포장용기 쓰레기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음. 이제는 물건을 구입할 때도 신경을 써서 포장이 덜 되었거나 안되어있는 상품 위주로 구입을 하고자 함.

우수제안 2

1. 제안명

기후환경도시 창원형 제로에너지주택 스마트홈 시스템 지원사업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얼마전 창원시는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 환경모범도시로, '2030 스마트 기후환경도시 창원'을 선포하였다. 지난 3년간 탄소포인트제 신규가입 세대가 늘고, 환경 녹색아파트 만들기 경진대회,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등을 시행하여 녹색생활 실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대가 준비해야 할 기후위기 대비에 많이 부족하다. 하여 가장 근본적인 주거시설부터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가장 친환경적인 주택이자, 기후변화 시대에 더욱 적합한 주택을 지어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3. 제안 내용

제로에너지주택은 에어컨이나 보일러를 켜지 않아도 여름에는 실내 온도 26도, 겨울에는 20도를 유지하며, 에너지를 매우 적게 쓰면서도 최소한의 냉방과 난방만으로도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집이다.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끌어 쓰거나 전환하는게 아니라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최대한 막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동적인 집이라고 한다. 제로에너지주택을 지을 때는 단열, 기밀, 고성능 창호, 열교 없는 건축, 열회수 환기 장치가 필요하다.

서울시 노원에너지제로주택은 온실가스 감축과 주거비 부담 절감을 위해 냉·난방 등 에너지 사용량을 단지 안에서 직접 생산하도록 설계한 국내 최초의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이다.

고단열과 고기밀, 3중 로이유리 창호, 열회수형 환기장치, 외부 전동블라인드 등 패시브 하우스의 원리를 이용하여 에너지 절약·저탄소 배출을 위한 최신 기술이 집약돼 있다.

집집마다 사용하는 난방, 냉방, 급탕, 환기, 조명 5가지를 태양광과 지열로 직접 생산하고, 남은 에너지는 한국전력으로 보낸다. 전기가 부족할 때는 한국전력 전기를 이용한다. 중요한 것은 집 안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양과 온도, 습도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스마트홈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무심코 소비하던 대기 전력도 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해준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개인주택,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동 공간을 패시브하우스 방식으로 짓는 곳이 늘고 있다. 창원시에서 친환경 공공건물의 건축을 적극 장려하면서 스마트홈 시스템 설치를 지원한다면 에너지 소비를 대폭 줄이면서 화석연료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도 지금보다 훨씬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나의 실천 다짐

일상 속 많은 환경문제들은 거창한 환경운동이나 어려운 실천만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30분 이내의 거리는 도보로 걸거나 자전거 타기, 즐겨 마시는 커피 개인 텀블러 사용하기, 멀티슈나 종이타월 대신 손수건 사용하기 등 조금만 습관을 들이면 나와 사회 그리고 지구가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공존하며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일부터가 아닌,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거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수 제안 3

1. 제안명(주제)

“나의 인생 나무”를 가진 초등학교 1학년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미세먼지, 매연 등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도시 창원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필요가 있다.

3. 제안 내용

※ 대상: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 기존과 차별성(타시도 유사 사례 : 해당 유무- 모름)

※ 추진 및 방법: 창원 시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입학식 날 나무 한 그루를 선물하여 입학식이 끝나면 바로 집 화분이나 텃밭, 산 등에 심도록 한다. 1학년 학생들은 자기 나무에 이름을 짓고 정기적으로 돌보고 관찰하며 1년 후에 관찰문이나 소감문을 시청에 제출하면 창원 시청은 수상을 한다.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 즈음에도 나무를 제일 잘 키운 학생을 선발하여 상금이나 상품, 시장상 등을 수여함으로써 나무를 소중히 하고 자연 아끼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간으로 살아가게 한다.

4. 나의 실천 다짐

매년 나무 한 그루씩 심고 가꾸자!

우수 제안 4

1. 제안명

‘놀이만 하는 공원 말고 신기방기한 환경공원’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필환경 시대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지구를 위한 실천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건 재활용 열심히 하기, 종이 아껴쓰기 등 정말 기초적인 일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가족들과 함께 실천해보려고 하지만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자녀와 가족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환경교육 방법이 없을까?

3. 제안 내용

-창원시의 많은 공원 중 하나를 누비자 환경공원으로 만든다.

공원에는 자전거 발전기, 빗물저금통, 태양광 주차장등 재미있는 환경관련 물건들을 소개하고 책에 소개되었던 비전화(非電化) 카페도 설치하여 다양한 환경실천활동을 소개한다.공원에 놀러가는 것만으로도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4. 나의 실천 다짐

환경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나의 귀찮음을 이기는 환경실천의지를 다지며 중간점검도 해 볼 것이다.
나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함께 하자고 이야기 할 것이다.

우수 제안 5

1. 제안명(주제)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에너지를 모아모아~!
(주민참여적 신재생에너지 및 자원순환 사업 활성화)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확대 : 탄소중립실천을 위해 기존의 석탄, 원전에너지 위주의 에너지공급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대안 중 하나이다. 그에 비해 사람들은 그 필요성과 정확한 지식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현재 시행되는 태양광발전기 설치사업은 수도권, 경기 지역이 대부분이다. 창원시에는 많은 공용주차장과 공원들이 있어서 태양광발전기 설치에 접근이 쉬울 것이라 생각된다. 공공시설이나 공용 부지 외에도 개인소유건물, 가정용 미니태양광과 같이 소규모 발전시설물에 대한 정보와 설치보급이 잘 알려지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접할 기회가 적고, 개인적으로 시도해 보고 싶어도 고액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어렵다.

* 쓰레기문제에 대한 인식개선과 참여 필요 : 일반 시민들은 집 밖으로 쓰레기를 내어놓고, 분리배출 이후, 재활용 처리과정과 최종 처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분리배출 방법을 잘 지키지 않아 선별장에서조차 어려움을 겪고, 쉽게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치움으로 쓰레기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자원으로 쓰지 못하고 버려지는 폐기물들이 많다. 쇠나우마을발전소를 읽고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시민들의 참여이다. 그들도 처음엔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했고, 인식한 후 어떻게 바뀌어나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끊임없이 정보를 공유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 이끌어 갔을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지금은 먼저 '기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과 인식개선, 쓰레기처리장 견학 등 참여기회가 많아져야 한다. 그 일환으로 시민들에게 열려있는 자원순환거점센터가 필요하다.

3. 제안 내용

* 야외공용주차장 태양광 패널설치

- 1) 재생에너지에 대한 교육홍보, 공용부지부터 태양광발전기를 설치 시행
- 2) 무료/유료 배터리 충전 등 전기충전 서비스를 제공

* 가정용태양광설치에 관한 지원 및 보급

- 1) 시범운영 : 희망가구의 신청을 받아 설치 및 관리 - 잉여전력에 한하여, 1킬로와트당 금액을 산정하여 매입하거나, 전기요금 대납.
- 2) 회원제 운영 : 설치공급에 대한 시의 검수를 받고, 지속적인 관리와 보수를 보장.
 - 월 대여비용 납부
 - 폐기처분에 대한 서비스까지 책임.

자원순환 거점센터 운영

- 1) 폐가전회수센터 : 폐가전들을 회수, 분리, 처리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거점센터를 만들어 버려지는 쓰레기를 자원화하고, 그 과정을 시민들에게 참관할 수 있게 하여 교육과 인식개선의 장으로 활용. (*부산시폐가전회수센터 참고). 오래된 가전의 부품을 보유하여, 중고가전수리 서비스 제공. (현재도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함)
- 2) 재활용회수센터 : 현재 별도 수거종인 아이스팩과 생협, 제로웨이스트샵에서 수거하는 종이팩/멸균팩을 거점센터로 회수처리 / 참여자 리워드 제공
- 3) 자원순환교육 : 분리배출이나 자원순환과정에 대해 교육홍보관, 소형플라스틱 업사이클링에 대한 홍보 전시/ 재활용과 새활용 참여프로그램 운영 (*서울새활용프라자 참고)
- 4) 현재 5곳 인공지능 투명페트병.캔 자동수거기를 확대. 주변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위치도 외곽쪽이라 시 중심가 공공기관, 매점이 있는 도서관, 학교에 운영하면 교육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다.

4. 나의 실천 다짐

에너지 절약에 더욱 힘쓰겠다. 기본적으로 소등, 플러그 빼놓기, 최소가전사용, 에너지효율등급 높은 가전 구매 등의 실천과 매월 전기와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체크하며 절약하려 노력 중인데, 5인 가족이라 쉽지만은 않다. 지금 7년째 써오던 2구 가스레인지 중 1구가 점화가 되지 않아서, 바꾸려고 알아보고 있었다. 가스보다는 전기사용이 훨씬 에너지 효율면에서 유익하다고 해서 전기레인지로 바꾸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1구는 아직 사용가능하다. 부품보유기간이 6년이라 명시되어 있어서, 따로 A/S를 받을 수도 없고, 동네에 가스레인을 이고 가서 수리받을 곳도 없다. 지금 당장 전기레인을 바꾸면 사용하던 렌지는 폐기물이 되어 그냥 버려지겠지만, 조금 불편하더라도 사용가능한 1구가 고장날 때까지 더 사용한다면, 자원절약 면에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기레인지 구입을 미뤄본다. 제품을 끝까지 오래, 사용하고 싶어도 시스템이 그렇지 못하다는 게 씁쓸하다. 전기압력밥솥도 그렇게 빨리 망가졌고, 전기사용량이 기본적으로 있다보니, 현재는 가스압력솥으로 밥을 한다. 그래서 가스레인지 1구만으로 요리하기는 매우 번거로운 일이다. 하지만 최소한의 가전갯수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마지막 고장날때까지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번 겨울에는 온수 사용하는 샤워시간 줄이기와 난방시간 줄이기를 목표로 에너지 절약계획을 세워본다. 이를 통해서 아이들과 계속적으로 에너지절약과 기후위기와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도 습관을 기르고, 배워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겠다. 지속가능한 삶을 추구하며 시작한 제로웨이스트, 지향하고 널리 알리자. 지난 9월부터 쓰레기다이어리를 쓰고 있다. 먼저 30일 챌린지(매일 배출되는 쓰레기기록) 후, 가정내 주로 배출되는 쓰레기와 종류에 대해 파악하고, 주로 소비되는 플라스틱포장제품 사용을 억제하면서 가정배출 쓰레기를 줄여왔고, 지속적으로 2주에 1번 아파트 분리배출시 양을 측정하고 기록하고 있다. 장을 볼 때는 장바구니 소지뿐만 아니라, 마트내 소분 비닐과 시장내 검은비닐봉지 사용대신 면/그물주머니 등을 챙겨서 사용하고, 개인적인 실천을 넘어서 소비를 줄이는 습관과 플라스틱포장재에 대한 기업에 건의, 제로웨이스트 용품 홍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등에 대해 실천하고, 블로그나 주변인들에게 많이 알리고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기후환경소모임을 만들어서,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 연대해서 할 수 있는 활동들에 참여하고 이어가려고 생각중이다. 책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고, 몰랐던 부분에 눈을 뜨며 생각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니, 내년에도 기회가 된다면 이런 독서프로그램에도 다시 참여하고 싶다.

우수 제안 6

1. 제안명

‘배달음식 용기 세척 및 재사용 정책 활성화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코로나로 인해 배달음식 문화가 발달하면서 그에 따른 포장용기 사용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1회용 제품을 사용하기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용기도 엄청납니다. 배달음식 그릇을 세척하는 전문업체를 활성화하여 용기 세척 및 재사용 정책을 활성화한다면 배달음식으로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3. 제안 내용

배달음식 용기를 세척하는 전문업체를 활성화하여 정책적으로 실시합니다. 집에서 설거지 하는 것보다 당연히 깨끗하고 소독 등 과정을 거쳐 미생물 검사 결과에도 99% 만족하는 등의 결과를 공유한다면 이용자들도 인식이 개선될 것입니다. 다만 사업 초창기에는 거부반응이 있을수도 있으니, 소비자에게 선택하게 해서 선택하는 소비자에게는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나의 실천 다짐

장기적으로 버려지는 플라스틱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수 제안 7

1. 제안명

‘빛 공해로 인한 인공조명 제한하기’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자연과 가까이하는 것이 인간의 건강과 복지에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해주는 연구 결과가 많아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창원시는 어디로 가나 산이 보이는 지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로수도 많이 있고 녹지가 잘 분포되어 있다. 나무들과 녹지는 잘 구성되어 있으나 이들과 한 몸으로 살아가는 곤충들은 살기 힘든 곳이 되어가고 있다. 밤마다 색색의 밝은 불빛들이 그 이유 중 하나이다. 이런 인공조명은 생태계에서 곤충의 역할을 제한하게 된다. 자연은, 생태계는 곤충들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있다.

3. 제안 내용

※ 대상(주요 수혜자 및 수혜 내용 설명)

빛 공해는 예전부터 화두되어 왔던 주제이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 밤은 낮보다 더 화려하고 휘황찬란해졌다. 어두운 밤이 밝아질수록 인간도 식물도 곤충도 그에 따른 불편함을 겪게된다.

※ 추진 및 방법 등 사업 실현 가능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

인공조명(가로등 같은 꼭 필요한 조명은 제외한 조명들)을 소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에 켜는 시간은 늦게, 끄는 시간은 빨리해서 밝게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한다.

4. 나의 실천 다짐

어둠 속에 색색의 빛들은 아름답게 느껴진다. 하지만 잠간의 아름다움을 위해 희생되어지는 작은 곤충들, 또 이들과 상호작용하는 생태계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밤에 필요한 불 외에는 끄기. 어렵지만 간단한 방법이다. 밤을 밝게 비추는 인공조명 대신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나 곤충 식물들을 찾아보기 등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면 찾아보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우수 제안 8

1. 제안명

‘[시민의 힘으로 창원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창원시의 현황 및 문제점에 따른 개선 방향 제시)

창원시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특례시를 출범을 앞둔 시로서 전국에 비해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의 2030탄소중립 40%목표에 지자체들이 줄여나가야할 탄소중립의 가장 선두적인 활동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장단기적 저감 목표를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공공기관 옥상 및 주차장 부지등 태양광 설치를 최대한 확대하고, 가로수형 풍력발전등을 통해 도심의 에너지를 화석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3. 제안 내용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는 서울, 경기도 안산, 수원, 충남 당진, 전라도 광주, 전북 전주 등 많은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와 단체 등에서 협동조합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시민들과 이익공유형으로 시민들이 직접 발전소를 건립하는 구조이다. 기존의 태양광발전이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확대하여 지역의 특징에 맞게 가로수형 풍력발전을 확대하여 시민들이 다니는 차도 등에서 흔히 재생에너지를 보면서 친숙한 에너지로 전환되어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도시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에너지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고 이를 다시 재투자하고, 기후기금으로 적립 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여러사람이 신명나게 함께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4. 나의 실천 다짐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세우고 우리나라도 2030NDC 40%감축, 2050 0%를 달성하려면, 바로 지금 나부터 실천이 중요하리라 본다.

- 나는 다음세대를 위해 냉난방기 사용을 줄여 탄소 발생을 저감하겠음.
- 주말에는 자가용보다는 자전거와 대중교통 타기를 실천하기

우수 제안 9

1. 제안명

‘아이들의 야외 도서관을 만들어 주세요’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창원시는 마산과 진해가 바다를 접해 있어 해양의 도시로 자리하고있습니다. 또한 창원시는 공원이 많아 아이들의 놀이공간으로 최적의 장소입니다. 몸으로 놀 수 있는 놀이터는 공원마다 조성이 되어 있지만, 야외도서관은 없습니다. 열린 책놀이공간을 만들어 웃고 떠들며 책을 자유롭게 읽고 나아가 독서문화를 조성하고 조용하고 정적인 책 읽는 기존의 생각을 바꾸는 질 높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3. 제안 내용

창원시 공원에 있는 공공 야외놀이터 주변에 야외 도서관 건립을 제안합니다. 만화와 동화 아이들이 동적인 장소에서 책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책을 준비해주세요. (주민들의 기부 도서와 예산 확보를 통해 충당) 청소와 관리는 공공일자리를 통해 해결

4. 나의 실천 다짐

아이들은 공공도서관의 자유롭지 못한 환경으로 책 읽기에 다가가는 계기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조용하게 책 읽는 기존의 생각을 벗어 야외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 듯이 안전한 야외 도서관을 만들어 책 읽는 문화와 아울러 책과 도서관의 정형화된 틀을 깨며 책 읽는 문화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수 제안 10

1. 제안명

‘아이스팩 수거함과 우유팩 수거함을 만들자.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진해지역에서는 아이스팩 수거함이 각 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나 아직까진 마산에는 없어서 불편하네요. 얼마든지 재활용이 가능한데도 쓰레기로 배출되어지고 있지요. 복지센터에 우유팩을 1키로 모아서 가지고 가면 휴지로 교환해주지만 평일에만 이용가능하니 불편하고 1킬로까지 모으긴 힘드네요.. 좀더 편리하고 현실성에 맞게 개선되었으면 좋겠어요

3. 제안 내용

현재 창원시는 103만4635명 중 절반 이상인 61만 6280명이 자동차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자동차 수는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으며 책에서 언급되었듯 큰 위험을 안고 있다. 따라서 여러 장거리 걷기 행사를 시행하고 상품을 증정함으로써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걷는 것의 즐거움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는 장거리 걷기 행사를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4. 나의 실천 다짐

지구환경 문제가 가장 큰 숙제인 것 같다. 조금이라도 에너지를 아껴쓰고, 내가 할수 있는 범위에서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

우수 제안 11

1. 제안명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쓸만한 장난감을 버리는 공간을 마련.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쓸만한 장난감을 재활용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경우가 종종있다. 그리고 옷수거함 위에 쓸만한 장난감이나 물건들을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도록 올려놓는 경우를 종종 보았다. 새장난감을 사기보다는 장난감을 서로 물려쓰고 바꿔쓰면 좋을 것 같다. 자원도 절약하고 환경도 보호하는 일이 된다. 장난감을 비싸게 주고 샀다가 금방 싫증나서 가지고 놀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다.

3. 제안 내용

아파트 안 분리수거장에 장난감을 모아두는 공간을 따로 마련하면 좋을 것 같다. 그곳에 가져가지 않고 남겨놓는 것은 관리소에서 종량제봉투를 사서 버리는 것으로 한다.

4. 나의 실천 다짐

새로운 물건을 자주 사기보다는 중고품을 잘 이용하겠다.

우수 제안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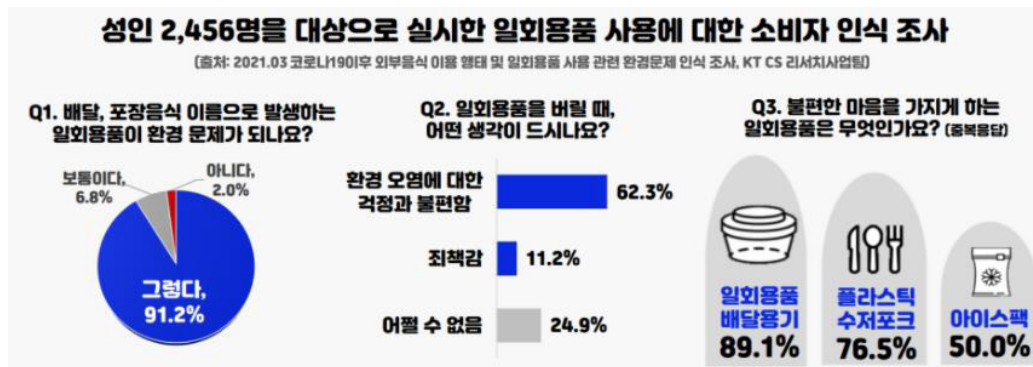
1. 제안명

용기 내는 당신이 환경 살리미(살림-ing)!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가.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 특히 플라스틱 사용 급증

나. 썩지 않는 플라스틱으로 불필요한 플라스틱 제조비용 발생, 매립지 구축 문제, 플라스틱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 사회 문제 발생



다. 일회용품(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

3. 제안 내용

가. 대상 :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고, 활발한 SNS활동을 하는 MZ세대

나. 내용

- 1) 음식 포장 시 용기 내기
- 2) 용기내어 포장한 음식 사진을 찍어 SNS 업로드 및 필수 해시태그 지정
 (#포장할때용기내요 #창원지속가능발전 #창원제로웨이스트 #플라스틱OUT...)
- 3) 네이버 폼으로 SNS URL 및 이름, 휴대폰번호 제출
- 4) 확인 후 참여자에게 창원 內 제로웨이스트샵 상점 3천원 할인권 증정

다. 타 시도 유사 이벤트

- 1) 인천 모래내시장 '용기내' 이벤트(일회용 포장 없이 장보면 친환경 용품 증정)
- 2) 롯데시네마 '용기내' 이벤트(용기내 팝콘 구매후 SNS인증시 영화관람권 증정)

4. 나의 실천 다짐

가. 가까운 거리는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겠습니다.

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생활화 하겠습니다.

다. 냉난방 적정온도를 유지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겠습니다.

우수 제안 13

1. 제안명(주제)

전자 쓰레기 추적 보도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모두 각자 쓰레기 분리수거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전자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몰라서, 불연성 폐기물 쓰레기로 버리거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안내에 따라 내놓는다.
내가 버린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안다면 더 좋은 방법으로 배출할 것이다.

3. 제안 내용

지역에서 버려지는 전자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추적하고, 유튜브와 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알려준다.
특히, 품목별로 실제로 어떻게 처리될 것이지, 그래서 어떻게 배출하는 것이 좋은지 예와 함께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좋다.

4. 나의 실천 다짐

전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사용 중인 전자제품을 아껴서 잘 사용하고, 버리는 전자제품은 주민센터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처리하겠다.

우수 제안 14

1. 제안명(주제)

지구를 위한 행동, 쉽게! 편하게! 습관처럼!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환경을 위한 일은 하나의 불편을 감수해야하는 일이다.

그러다보면 쉽게 지치고 '나혼자 이렇게 해서 뭐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으며 다시 불편을 버리고 편함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래서 쉽게! 편하게! 습관처럼!! 할 수 있게 주변 환경을 바꿔 줄 필요가 있다.

3. 제안 내용

1. 작년에 미션 제안 때 플라스틱병(패트병) 수거함 설치를 제한하였다

얼마전 창원시 5곳에 설치된 것을 보았다. 하지만 보상이 너무 작아 그 근처 이용객은 아무곳에 버리지 않고 이용하겠지만 일부러 찾아가 실천할 지는 의문이 든다. 시민들의 가까운 곳(동네)에 생긴다면 보상이 작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실천할 듯 하다. 더 많은 곳에 생기면 좋겠다

2. 폐기약 관련 제안 해 본다

폐기약은 아무곳에 버려서 안되는 것이다보니 약국이나 보건소에 버려야하는데 보건소는 쉽게 찾기 힘들다. 약국에서 관리를 해 줘야하지만 이 조차 귀찮아 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폐기약을 모아서 가야하는것부터 불편한 일인데 약국에 부탁하는 것처럼 버려야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눈치가 보인다. 이런 부분에 있어 약국에 혜택을 주고 시민들에게 적극홍보를 한다면 하수구나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을 조금이나 제대로 폐기 할 수 있을 듯 하다

3. 우유팩, 멸균팩 수거함 만들기

우유팩, 멸균팩 수거에 대해 요즘 작은 단체나 모임 그리고 제로웨이스트샵에서 적극 홍보하면서 아주 약간의 재활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이 종이와 함께 배출하거나 제대로 세척을 하지 않고 분리배출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도 각 동네마다 수거함을 설치하고 배출방법을 적극 홍보한다면 소중한 자원이 그냥 버려지는 것이 많이 줄어 들 거라 생각한다.

4. 그 외

일회용이란 순간의 편함을 위한 사람들의 선택이다. 편함을 느꼈기에 다시 불편함으로 가기란 쉽지 않다. 지자체에서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는 시민들이나 가게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큰혜택(작은혜택은 쉽게 움직이지 않음)을 준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습관처럼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 생각한다.

4. 나의 실천 다짐

1. 하루 한끼 채식 하기
2. 나의 외출 준비물 - 손수건, 다회용(수저,젓가락,컵,빨대) 챙기기
3. 에코 홈 생활(보일러 적정온도 유지, 불필요한 전기 코드 뽑기, 샤워시간 줄이기)
4. 물건 오래 사용하기
5. 불필요한 포장이나 비닐 받지 않기, 받았으면 재사용 하기

우수 제안 15

1. 제안명

창원시 수목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및 인공구조물 현황 관리체계 구축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나무의 언어를 읽으며 알게 된 나무의 본성과 인간으로서 감내해야 될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난 지속가능한 삶을 건강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많다. 그래서 내가 이용하는 숲길을 더 안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3. 제안 내용

- 창원시 가로수 종류 및 수목 조사 및 모니터링
- 창원시 숲속 나들이길 및 조성된 숲길 모니터링
- 창원시 숲길에 조성된 인공물 현황 관리 및 고목관리 지침 만들기
- 창원시 보호수 관리 및 노거수현황 조사하기

4. 나의 실천 다짐

올바른 숲길 걷기를 통해 건강한 기후시민 되고자 한다.

우수 제안 16

1. 제안명

창원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이러다 정 말 다~ 죽어~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창원시의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약 1% 대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심각한 기후위기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인류 멸망을 초래할 것입니다. 창원시 관내 누비자 주차장에 자전거 보호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태양광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3. 제안 내용

‘대상: 창원시민 등

기존가 차별성: 차별성 없어서 남들 하는 만큼만 잘 하면 좋겠습니다.

1.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시설 및 지원 확대 - 누비자 보관 시설물 설치하며 태양광 설치
2. 태양광 설비 시설 자금 저리 융자(타 시도 군에서 조차 1% 저리 시설자금 융자해줌)

4. 나의 실천 다짐

적당히 먹겠습니다!

적당히 쓰겠습니다!

SDGs 알려 나가겠습니다~!

우수 제안 17

1. 제안명(주제)

창원시 해양(진해만, 마산만) 교육 활성화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현재 창원시는 마산만과 진해만이라는 해양 자원을 보유
- 그러나 해양과 연안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인식 부족
- 해양 활동가 양성을 통해 해양 자원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

3. 제안 내용

- 대상 : 창원 시민
- 내용 : 해양 교육 콘텐츠 강화
 - 1) 학교 및 사회 해양교육 확대
 - 2) 해양문화자원 발굴·조사 및 활용 촉진
 - 3) 해양교육 디지털화 및 빅데이터화
- 효과 : 도시 해양 자원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 증가, 도시 로열티 강화

4. 나의 실천 다짐

- 창원시의 바다 자원에 대해 더 관심가지겠습니다.
- 창원시의 갯벌과 연안이 더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른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게 창원의 해양 및 연안자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수 제안 18

1. 제안명(주제)

창원시 행사 및 알림 서비스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창원시 안에 각 부서에서 하는 여러가지 활동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걷기대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체험, 모바일 헬스케어 등 여러가지 이벤트 들이 많은데 이 수많은 이벤트들을 자기가 직접 알아보지 않는다면 알수 없습니다. 저는 매번 창원시청 홈페이지, 가정지원센터, 도서관 등 여러 홈페이지를 들어가면서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체험이나 걷기대회 등을 신청하며 즐거운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말마다 할게 없다 창원시는 너무 재미없다. 부산에 놀러간다. 등 그러지만 잘 찾아보면 이런 무료 체험활동이나 아이와 할 수 있는 여러가지 활동이 너무 많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창원시에서 시민들을 위해 이렇게 많은 이벤트 및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리고 시민들이 많은 활동 들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벤트 홈페이지를 한군데 모아놓것을 본것 같은데 업데이트도 제대로 안되고 사람들이 알지도 못합니다. 홍보도 필요하고 관리도 필요할 듯 합니다.

3. 제안 내용

창원시청 공지사항에 올라오기도 하지만 많은 이벤트들이 너무 흩어져있습니다. 창원시의 모든 이벤트 활동 이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리면 좋을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자기가 원하는 활동들을 홈페이지 한군데에서 모두 볼수 있고 신청할수있으며,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체험을 위해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들도 모두 세금으로 진행 되는 것인데 모든 시민들이 신청하고 활동함으로써 자기가 낸 세금들이 헛투루 안쓰이고 본인한테도 이런 활동을 통해 잘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좋을것 같습니다.

4. 나의 실천 다짐

시민과 함께하는 창원시로 거듭 날 것입니다.

우수 제안 19

1. 제안명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놀이터)를 만들자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친구들하고 주말에 노는데 돈이 없어서 밖에서 놀려고하니 유치한 놀이터밖에 없고 청소년들이 이야기하고 놀 공간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불편했고 밖에서 노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놀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요성.

1. 요새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PC방이나 돈이 필요한 오락실같은 곳에 가서 논다. 매주 그렇게 놀게 된다면 점점 돈을 떨어져 갈 것이고 그럼 아이들은 그런 곳에서 못 노니 밖으로 나오게 된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쉬고 놀 만한 곳이 없으면 그냥 게임하며 허무하게 시간을 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2. 아이들이 친구들과 밖에서 노는 것에 더 재미를 붙이면 PC방 또는 오락실 등을 덜 가게 되고 대인관계도 잘 할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

3. 제안 내용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놀이터)를 만들자

요새 놀이터들은 초등 저학년에겐 재미있지 고학년에겐 재미가 없다.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몸으로 뛰어노는 횟수는 적어지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 그런데 저학년을 위한 놀이터만 있다면 고학년들은 있기 쉬운 PC방을 찾게 된다. 그러나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에다가 책도 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든다면 학생들이 게임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게 놀 수 있을 것이다. 대책은 전에 시민들이 힘을 모아 놀이터 설계를 직접한 것처럼 이번에는 직접 관계된 청소년들이 모여 함께 설계하고 만드는 것이다.

4. 나의 실천 다짐

학생들에게 이런 나의 생각을 더 많이 전달해 친구들도 거기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우수 제안 20

1. 제안명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누비자 마일리지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창원시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장려와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누비자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누비자를 많이 이용하는 것에 대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자차가 있는 시민들보다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차 이용을 줄이고 누비자와 같은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누비자를 많이 사용할수록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이를 창원사랑 상품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게 한다면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도 살리며,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3. 제안 내용

※ 대상 : 탄소발자국을 줄이고 대중교통과 누비자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시민
※ 창원은 누비자가 잘 되어 있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이 다소 부족하여 늘 사용하던 사람만 사용하고, 새로운 인원 유입이 적다는 생각이 든다. 새로운 인원을 유입하고 실제 탄소발자국 줄이기를 실천해야 하는 성인들의 참여를 높이도록 누비자 마일리지를 제공하여, 창원사랑 상품권으로 교환, 누비자 이용금액 할인 등의 혜택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 누비자 앱을 개발하여 누비자를 이용한 키로 수,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걸은 걸음 수 등을 캐쉬 혹은 마일리지 형태로 적립. 일정 이상 모이면 창원사랑상품권으로 교환, 누비자 이용금액 할인 등의 혜택 제공.

4. 나의 실천 다짐

나 또한 창원 시민으로써 환경보호와 탄소발자국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한다. 창원의 이미지가 공장이 많고 환경이 좋지 않다는 인식이 타시도 사람들에게는 있으리라 생각된다. 창원의 이미지를 환경친화적 도시로 바꾸기 위해 기존 활용되고 있는 누비자를 적극 활용하며, 주변 사람에게 많이 홍보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플라스틱 배출 줄이기, 텀블러 사용하기, 쓰레기 줄이기, 대중교통 및 누비자 이용하기 등 환경을 위한 작은 발걸음을 걸을 것을 약속한다. 더불어 이렇게 좋은 책을 읽고, 다시 한 번 환경에 대해 생각하게 해준 창원시 지속발전협의회에 감사드린다.

2021 SDGs
시민온라인 독서 교육
'읽고 제안하기'

Part 3.

제안 모음(32개)



Part 3.

제안 모음(32개)

제안 1

1. 제안명

창원의 공원, 그에 따른 홍보...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창원시의 현황 및 문제점에 따른 개선 방향 제시)

창원시의 장점은 공원이 많은 것인데요 정작 그 공원들이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느낌이에요, 몇몇공원에만 사람이 많고요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공원들은 풀만 무성해서 오히려 무서워요 공원을 활용해서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또는 산책로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창원의 장점을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외지사람들이 창원하면 유흥가만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창원 깨끗하고 공원도 많고 장점이 많은 곳인데 안타깝워요

3. 제안 내용

※ 대상(주요 수혜자 및 수혜 내용 설명) 시민들이 문화공간

※ 기존과 차별성(타시도 유사 사례 : 해당 유무) 창원의 공원이 많은 것을 잘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 추진 및 방법 등 사업 실현 가능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

일정공원 일정공간에만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공원은 많지만 방치되는 공원에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교운동장은 막혀있고 아파트안은 아파트 주민이 아니면 이용하지 못하게 해서 초등학생아이들이 있을 곳이 없어요..공원에 작은 농구장이나 축구장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자전거를 탈수 있는 공간도 좋을 거 같아요

4. 나의 실천 다짐

※ 실생활 속에서 SDGs를 실천할 수 있는 행동 제시 ※ 앞으로의 다짐 등

창원에 장점을 많이 홍보해주세요..창원은 뭐가 없다며 다들 주말만 되면 외지로 나가요..

저는 창원토박인데요...창원이 발전한게 없는 거 같거든요....있는 장점을 잘 살려서 도시가 활기찼으면 좋겠네요

제안 2

1. 제안명

마스크는 미세먼지 대책이 될 수 없다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마스크 착용 강제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건강 대책으로서 실효적이라고 볼 수 있는가 → 공기는 개인의 책임보다는 중앙/지방 정부의 정책적 실패에 따른 책임이 원인이므로 정부의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 상세 제안은 '3.'에 기술

- 미세먼지 제거율이 높을수록 건강에 해롭다.
- 미국환경보호청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호용 마스크 착용은 시민들의 호흡을 어렵게 만들어 육체적 부담을 주며, 1회 호흡량을 감소시켜 호흡 빈도를 증가시키고, 폐포와 폐에서의 환기를 감소시키며, 심박출량 감소와 같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3. 제안 내용

1. 연료 정책 및 배출가스 규제 강화
 - 미국, 유럽, 일본 등 먼저 공업화와 도시화를 겪은 선진국들은 1950~60년 극심한 대기오염을 겪었다.
 - 화석연료와 내연기관 자동차 사용, 소각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게 급선무
2. 수소·전기차 사용 인센티브 정책

4. 나의 실천 다짐

창원시민으로서 창원시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조율해나갈 수 있는 정치인/국회의원에게 투표한다.
환경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투표로써 정책이 올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제안 3

1. 제안명

플라스틱 소비 줄이기.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우리가 소비하는 것들로 인해서 지구상의 다른생물과 공존이 힘들다.
산업화로 인해서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량이 많다.
일상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이 많다.

3. 제안 내용

※ 사업 대상(주요 수혜자 및 수혜 내용 설명)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카페 텀블러 사용하기, 일회용 빨대, 스틱 줄이기)
분리 수거 잘하기.
기업에서도 재활용 가능한 제품 출시하기.
제로웨이스트를 실천 할 수 있는 제품과 포장지 사용.

4. 나의 실천 다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카페 텀블러 사용하기, 일회용 빨대, 스틱 줄이기)
분리 수거 잘하기.
기업에서도 재활용 가능한 제품 출시하기.
제로웨이스트를 실천 할 수 있는 제품과 포장지 사용.

제안 4

1. 제안명

BRT 시스템 구축시 고려사항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창원시의 현황 및 문제점에 따른 개선 방향 제시)

마산, 진해에서 창원으로 출퇴근하는 차량중 상당수가 나홀로 차량임. 통근차량의 불편함 등 여러 이유로 나홀로 출퇴근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BRT구축시 창원시의 이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서 설계에 반영해야함.

3. 제안 내용

버스 완전 공영제없이 BRT의 완전한 정착은 절대 불가능함. 수익성의 논리가 반영되기 시작하면 시민의 편리보다 버스회사 수익성 보존이 노선설계의 제1원칙이 되어버림. 따라서 출근시 창원방향으로 차량이 몰리고 퇴근시 마산, 진해, 장유로 차량이 몰리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상 BRT는 성공하지 못하다고 보여짐. 분명 노선 설계시 여러 난제들이 등장할 것인데 버스회사의 수익성 보장이라는 것을 제거해야 진정한 시민의 발로 설계할 수 있을것임.

제안 5

1. 제안명

대중교통 강화,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요즘 전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창원시의 경우 출퇴근시간, 주말의 경우 도심에 차가 가득하여 교통정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심 곳곳에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그곳의 정체가 더 심화될 것이고 이는 도시의 미래에 있어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므로 대중교통 수단을 더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3. 제안 내용

※ 대상 : 전체 창원시민

※ 기존과 차별성 :

※ 추진 및 방법 등 사업 실현 가능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

창원시는 이미 누비자를 통해 자전거 타는 도시로의 혁신을 이루어내었고 앞으로는 도심에 brt건설이 예정되어 있으나 brt 역시 탄소를 배출하는 버스이기 때문에 친환경 트램이나 전기버스 도입, 전기 자전거 도입 등 다양한 친환경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 공단 출퇴근시에도 자가용이 아닌 다양한 대중교통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변모해야 합니다.

창원의 경우 버스 간격이 길다는 외지인의 평가가 있으므로 그 부분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4. 나의 실천 다짐

※ 실생활 속에서 SDGs를 실천할 수 있는 행동 제시

※ 앞으로의 다짐 등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고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되도록 자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6

1. 제안명

중국을 원망 말고 배울 건 배우자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온다는 허위 뉴스로 중국을 적대시만 할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망하는 사이 중국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간파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3. 제안 내용

최근 중국에 다녀오신 분의 얘기를 들으니 중국은 오토바이 소음이 별로 없다고 한다.
수소를 연료로한 오토바이와 전기 자동차의 보급이 그 원인이다.
창원시가 수소 오토바이와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많은 지역이 되어 도로 소음과 미세먼지 매연을 줄이는
1등 도시가 되었으면 한다!
창원시가 수소 오토바이와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많은 지역이 되어 도로 소음과 미세먼지 매연을 줄이는
1등 도시가 되었으면 한다!

4. 나의 실천 다짐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제대로 알기위해 노력할 것이다.
관련 서적을 더 읽어보겠다.
배달음식을 덜 시켜 먹겠다.

제안 7

1. 제안명

군부대 시간차 출퇴근 시간 지정으로 탄소zero 실현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창원시 진해구의 군부대의 출퇴근 시간 극심한 차량정체로 배기가스 다량 배출 공기질 악화

3. 제안 내용

해군 밀집지역인 진해구의 부대 간부들의 출퇴근 시간을 부대별로 조정하여 공회전으로 인한 탄소배출을 줄였으면 함. 민관군 협의체가 조직되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길 기대함.

4. 나의 실천 다짐

천혜의 자원인 나무가 많은 우리 지역의 자연을 오래도록 볼 수 있으려면 인간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 중심에서 환경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일회용품 쓰지 않기, 가까운 곳은 걸어 다니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여 지속가능한 창원 만들기에 힘을 더하겠음.

제안 8

1. 제안명

행정과 시민들의 가교역할 확대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행정기관과 시민들의 소통 부재

3. 제안 내용

기후와 건강 지속에 대한 시민들의 염려를 행정에게 전달하고 함께 행동할 수 있는 정책 필요

4. 나의 실천 다짐

제안 9

1. 제안명(주제)

걸어가는 것보다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자동차에만 너무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장거리 걷기 행사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현재 창원시는 103만4635명 중 절반 이상인 61만 6280명이 자동차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자동차 수는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으며 책에서 언급되었듯 큰 위험을 안고 있다. 따라서 여러 장거리 걷기 행사를 시행하고 상품을 증정함으로써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걷는 것의 즐거움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는 장거리 걷기 행사를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3. 제안 내용

현재 창원시는 103만4635명 중 절반 이상인 61만 6280명이 자동차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자동차 수는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으며 책에서 언급되었듯 큰 위험을 안고 있다. 따라서 여러 장거리 걷기 행사를 시행하고 상품을 증정함으로써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걷는 것의 즐거움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는 장거리 걷기 행사를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4. 나의 실천 다짐

세탁을 하거나 설거지를 할 때, 샤워 할 때 물의 온도를 조금 낮추고 추울 때 온도가 낮더라도, 더울 때 온도가 조금 높더라도 참으며, 오븐, 냉장고, 냉동고 등을 덜 사용하는 등 앞으로는 갑자기 내게 무리가 되는 행동을 해서 전력을 줄이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작지만 사소한 것들을 실천할 것이고, 자동차를 덜 타고 자주 걸으면서 걷는 것의 즐거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것이다.

제안 10

1. 제안명(주제)

시민환경의식 키우기(집에 있는 친환경 제품 사용하기 및 나눔하기)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환경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느낀점이 많았습니다.

소비를 일차적으로 줄이고 최대한 재사용 가능한 기물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창원시에서도 정책시에는 창원시 마크를 단 새로운 친환경 제품들을 찍어내고 있어 새로 찍어내는 상품들을 좀 줄이고자 합니다

3. 제안 내용

※ 대상 창원시 전체 창원시민

※ 집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쌓여 있는 친환경 제품들을 밖으로 꺼내자는 취지
친환경제품은 새로 사는 것이 아닌 낡은 것이 맞는것이라는 인식을 계속적으로 심어줌
안쓰는 친환경 제품들을 나눔할 수 있는 공간 필요

4. 나의 실천 다짐

※ 책을 읽으면서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매체로 인한 소비를 좀 줄이고 더 건강한 생활방식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려합니다!

제안 11

1. 제안명(주제)

기적의 뿌리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서로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면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서로를 생각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된다. 서로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려고 하고 싫어하는 행동을 줄여가려 노력하게 된다. 우리도 이제는 환경을 생각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 나무를 생각하고 자연환경을 생각하면서 자연을 사랑하려 해야 한다. 아니 사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가야하고 노력해야할 필요가 있다. 사랑은 기적을 만들고 기적은 희망을 만들게 된다.

3. 제안 내용

전 연령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정에서는 작은 나무를 심어보는 것, 채소를 심어보는 것으로 시작해도 좋다. 식물을 키워보면서 생명을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환경을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우리의 편리함으로 사용하게 되던 일회용품부터, 환경을 오염시키는 세제와 같은 것들을 평소보다는 적게 사용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환경을 생각해보고,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시대의 환경을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 학교와 직장 등에서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두 번이라도 시간을 내어 청소부들만의 일이 아닌 환경을 생각하기 위해 우리들이 버린 쓰레기들이 길에서 나뒹굴지 않도록 공동체가 함께 쓰레기를 줍고 더불어 산책도 하며 함께 공동체 단합도 하며 환경을 알아가고 서로를 사랑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시간을 마련하는 시간(프로그램)을 만들기

4. 나의 실천 다짐

가까운 거리(예를 들면, 도보로 15-20분정도의 거리) 걸어다니기, 일주일에 한 번 대중교통 이용하기, 환경을 생각하며 일회용품 사용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으며 쓰레기 배출 줄여나가기

제안 12

1. 제안명(주제)

지구의 자원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용법이 잘못되었다.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우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변화되어야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제안 내용

음식물 나눔 냉장고가 있으면 좋을듯합니다.

먹지 않는 식재료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재료를 나눌 수 있는 통로가 있으면 좋을듯해요.

그 음식을 이용해 무료 급식소 운영도 가능할 듯 하구요.

4. 나의 실천 다짐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는 걸어다니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장 보기 전 냉장고 체크하기

제안 13

1. 제안명(주제)

쓰레기 없는 창원 업사이클링 활동 확대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올바른 재활용을 통해 재활용품 활용을 키우고 재활용이 되지 않는 작은 플라스틱으로 사용가능한 제품들을 만들어 창원에 no플라스틱 도시를 만든다.

3. 제안 내용

서울 플라스틱방앗간 / 남양유업 플라엑스
플라스틱 링도 제거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병뚜껑을 모아 링제거 하는 제품을 제작해 배포.
깨끗한 투명 페트병 자판기 설치

4. 나의 실천 다짐

- 병뚜껑모으기 및 빨대음료 빨대 없이 사용
- 마스크속 플라스틱고리 모으기
- 올바른 재활용

제안 14

1. 제안명(주제)

창원의 공공기관의 커피숍에서 우선적으로 텀블러를 사용하면서 점차 개인 매장까지 전파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일회용 플라스틱을 포함한 쓰레기 줄이기 필요

3. 제안 내용

개인 매장에서는 텀블러를 갖고 온 손님에게 커피 값 할인대신 멤버십 도장을 찍게 하여 일정 갯수가 생기면 다시 커피 한잔을 한다면 텀블러 가지고 다니는 손님도 늘것 같고, 실천하는 커피숍에겐 인센티브 같은 정책이 있다면 좋을 것 같다.

4. 나의 실천 다짐

- 병뚜껑모으기 및 빨대음료 빨대 없이 사용
- 마스크속 플라스틱고리 모으기
- 올바른 재활용

제안 15

1. 제안명(주제)

도시민들의 어촌마을 체험 및 일손돕기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창원도시민들이 휴일에 쉼곳으로 바닷가를 찾는데 단순히 경치구경만이 아닌 그곳에서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

3. 제안 내용

창원도시민들이 휴일에 쉼곳으로 바닷가를 찾는데 단순히 경치구경만이 아닌 그곳에서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

4. 나의 실천 다짐

창원도시민들이 휴일에 쉼곳으로 바닷가를 찾는데 단순히 경치구경만이 아닌 그곳에서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안 16

1. 제안명(주제)

재활용 쓰레기통 설치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요즘엔 거리에 쓰레기통이 없어 길에 버리는 경우가 많음
특히 일회용 컵을 버스에 들고 탈 수 없어 불편함
재활용 쓰레기통 설치 필요

3. 제안 내용

버스 정류장에 일회용 컵 전용 쓰레기통이라던지 재활용 쓰레기를 버릴 쓰레기통을 설치

4. 나의 실천 다짐

쓰레기통이 생긴다면 정말 필요한 것만 버리겠습니다
재활용 분리배출도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제안 17

1. 제안명(주제)

지금 당신이 낭떠러지 끝에 서있다고 생각하라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자연 환경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심각하게 변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약간의 농작물이나 식물을 키워보는 이들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연과 접하기 어려운 도시민은 그 변화를 빨리 느끼기 힘들다. 언론에서 나오는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사진을 통해서 생각으로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인간은 감각으로 느끼고 이성으로 생각해야 실천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다. 먼저 자연환경의 변화를 느낀 후, 자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3. 제안 내용

※ 대상 : 창원시에 거주하면서 식물이나 농작물 재배 경험이 없는 도시민

도시민들이 직접 경험하는 우리 나라 주요 농산물 키워보기(현재 인기있는, 또는 현재 주로 재배되는 식물이 아닌 기후위기 이전의 농작물 재배가 얼마나 안되는 지 직접 경험)

(주요 수혜자 및 수혜 내용 설명)

※ 기존과 차별성: 현재 식물을 키우는 것도 현재 인기있거나 잘 자라는 식물이 대부분인데, 실제 과거 경남지역의 농작물과 식물을 재배해보고 얼마나 안되는지, 왜 안되는지 알아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 추진 및 방법 등 사업 실현 가능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

- 1) 탄소중립마을만들기 추진위 마을별 골목텃밭 또는 도시 농업지 선정
- 2) 1990년대 이전까지 경남의 주요 농작물과 식물을 재배- 농업기술원 연계
- 3) 연간 단위로 보고서 작성
- 4) 기후 위기 등 실제 현실을 경험

4. 나의 실천 다짐

※ 있는 옷의 재활용 및 새로운 코디법 구성/ 뉴패션 리더 활동

※ 도덕적으로 생각하고 윤리적으로 실천하겠다. 몸으로 때워야 실천이다.

제안 18

1. 제안명(주제)

장바구니 소지하고 사용하기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일회용 플라스틱을 포함한 쓰레기 줄이기 필요

3. 제안 내용

※ 대상

창원시민 누구나

※ 기존과 차별성

현재도 일부 의식있는 시민들이 행동하고 있음

※ 추진 및 방법 등

1. 시민 모두가 일상생활시 조그만 쇼핑백, 포켓용 장바구니를 소지하고 행동함
2. 물품 구입 및 거리 행보 시 쓰레기 봉투로 대용할 수 있도록 함
3. 필요시 관공서에서 재활용 가능하고 소지하기 편한 장바구니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4. 나의 실천 다짐

※ 실생활 속에서 SDGs를 실천할 수 있는 행동 제시

항상 장바구니를 소지(손에 들던지 호주머니에 넣어) 하고 다님

※ 앞으로의 다짐

1회용 봉투, 컵 등의 사용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 안함

제안 19

1. 제안명(주제)

깨끗한 대기 환경을 위한 자동차 타기를 줄이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미세먼지 및 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창원시 대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 정책이 필요하다.

3. 제안 내용

- 창원시민들이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움직이고, 출퇴근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하고 부득이할 경우 버스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탄소 및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깨끗하게 함으로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4. 나의 실천 다짐

나도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 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녀야 겠다.

제안 20

1. 제안명(주제)

투명 방어벽에 새들을 위한 표식 설치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창원시 중동에 있는 우리 대단지 아파트 한쪽 길가에는 소음을 위한듯한 투명 방어벽이 높게 있다. 이곳을 보면 새를 위한 어떤 표시를 해 둔 것이 없다. 예전에 세원둔것도 아니고 최근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만들어진거라 더욱더 아쉬운 대목이다.

3. 제안 내용

새들을 위한 어떤 표식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4. 나의 실천 다짐

제안21

1. 제안명(주제)

한계를 기회로, 의식주부터 전지구적 관점으로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지구의 한계에서 우리의 삶을 되짚어보게 되었다. 그동안의 삶이 지구가 한계에 도달하게 부추기는 행동이 비일비재하게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먹고 마시고 입고 휴식을 취하는 모든 것들이 환경을 병들게 하고 지구를 유한한 세상에서 숨죽이게 하고 있다.

3. 제안 내용

의식주에서 지구적 실천

의>입는 것을 미니멀하게, 생활 속에 미니멀라이프 실천 사례를 공유

식>먹거리에 대한 친환경적 관점 공유, 생산에서 소비까지 스스로 실천법 찾기

주>집에 대한 생각을 재산적 가치 이전에 함께하는 공간, 나눔의 공간, 예를 들어 빈집을 활용하는 아이디어 공유, 빈집 살이를 통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풀어내고 그 공간을 통한 삶의 터전 제공, 청년들 삶의 문화 정착, 빈 공간에 대한 재생적 실천

4. 나의 실천 다짐

혼자라는 생각에서 함께, 전지구적 존재라는 인식을 다지고 행동 하나, 생각 하나에서도 나 하나쯤이야를 벗어나 이웃과 함께 실천하는 행동하는 지구인이 되고자 한다.

제안22

1. 제안명(주제)

창원시의 미래비전: 채식의 날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높은 육류 섭취율을 줄임으로써 가족의 먹이로 쓰이는 곡류가 굶주리고 있는 이들에게 공급될 수 있다. 창원 시민에게 육류 섭취에 대해 새로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3. 제안 내용

※ 대상: 창원 시민

창원시가 어린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적절한 육류 식습관을 지도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직접 간단히 조리하면서 채식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킨다. 창원시가 창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이나 온라인 실시간 강의 프로그램을 개설한다.(위 주제와 관련된) “채식 가득 일주일 한상”으로 일주일 간 게시물을 게재하고(하루에 1끼씩, 식물성 단백질 허용) 완료하면 창원사랑상품권과 같은 소정의 상품을 제공한다. 또한, 맛있는 건강 요리 교실을 개설한다.

4. 나의 실천 다짐

일주일의 평균 섭취 육류량을 절반 가량 줄이도록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하루에 1끼는 콩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로 바꾸어서 식단을 구성해볼 것이다

제안23

1. 제안명(주제)

대체 곤충식량 개발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미중 무역 전쟁 및 코로나19등의 국제 세계정세에 따라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그 중 하나가 식량 안보 문제도 잠재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있음을 보임.

식량 안보 문제의 먼 대책을 위해 식량 개발이 필요하나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산지임.

그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곤충식량 개발임.

3. 제안 내용

대상자는 창원시민, 및 대한민국 국민

현재 대체 식량으로 육고기를 대체할 배양고기 시장이 생겨남. 그럼에도 대중화 및 효율에 관한 문제는 오랜 시간이 걸리며 그에 따른 자원도 필요 할것으로 보임.

곤충식량에 대해서 연구 개발이 필요 할것으로 보임.

4. 나의 실천 다짐

저 탄소 시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정책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임.

제안24

1. 제안명(주제)

가족과 함께 하는 건강한 나무 놀이 체험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창원수목원 내에서 나무, 꽃, 풀의 이름 알기
나무와 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개발
가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놀이물 제작

3. 제안 내용

1. 대상: 가족(2인) (좀 더 확장하여 연인, 부부 등)
2. 주말 또는 휴일 10:00~12:00
3. 참여방법: 사전 신청
4. 내용: 창원수목원 걷기 → 체험프로그램 진행(계절별 놀이물로 체험놀이)

4. 나의 실천 다짐

나무 주변에 쓰레기 버리지 않기
가로수주변에 꽃심기
나무 사랑하기

제안25

1. 제안명(주제)

플라스틱의 세분화된 재활용 분리수거와 검사시스템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창원시는 현재 분리수거를 종이, 유리, 플라스틱, 스티로폼, 비닐, 캔, 고철류로 하고 있다. 그러나 플라스틱의 종류가 투명 PET, PP, 유색 HDPE, LDPE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져야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자세하게 나누어진 플라스틱을 각 가정에서 분리할 때 깨끗하게 세척하거나 스티커를 제거하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오려 내거나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한 후 분리수거장에서 검사를 받아 각 플라스틱의 종류대로 버리면 혜택을 제공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3. 제안 내용

창원시가 썩지 않는 플라스틱이 쌓이는 쓰레기 섬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 창원시에 가장 큰 손해가 있고, 또한 분리수거 시스템이 세분화 되다 보니 분리수거 확인을 담당할 인력(임금을 받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고, 창원시의 각 가정에서는 좀 더 시간을 들여 분리수거를 한 만큼 혜택을 제공해주게 된다.

참고로 투명 PET는 재활용률이 높기 때문에 따로 투명 PET만 넣을 수 있는 자판기를 영국에서는 학교 등 공공기관에 두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투명 PET를 계속해서 수시로 넣으면 혜택이 적립되는 시스템이었다. 창원시나 우리나라도 이러한 기계의 도입이나 지금이 부족하면 인력으로 대체해서 확실한 분리수거가 필요하다.

각 가정에서 쓰레기의 출발점이 시작되기에 분리수거 시스템의 혜택에 대한 좀 더 광역적인 홍보가 분명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학교나 단체를 통해 지속적인 교육과 실천체험이 매우 필요할 것이다.

4. 나의 실천 다짐

그동안 플라스틱의 재활용 과정을 몰랐기에 플라스틱처럼 생긴 것을 대충 행구어 버렸었다. 그러나 책을 통해 알게 된 시점을 시작으로 일단 깨끗이 세척하게 되었다. 그리고 플라스틱은 우리에게 친숙하고 다양한 용도로 쓰이지만 500~600년이 넘어도 지구에서 썩을 수 없는 물질이기에 테이크아웃 카페에서 텀블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 해야하겠다고 다짐했다. 플라스틱이 우리 생활에서 없어선 안 될 편리한 물질이지만 내가 사용을 줄일 수 있는 한 최대한 줄여야 이 지구에서 자손들까지도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상기하며 선택하며 실천하며 살아야겠다.

제안26

1. 제안명(주제)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생활 속 지구살리기 실천 캠페인 (초등학교)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초등학생때부터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지구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성 실천 행동에 대해 홍보하고,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사회적 행동규범 및 사회적 약속으로 진행 할 수 있는 토대 마련

3. 제안 내용

- ※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생활 속 지구살리기 실천 캠페인 포스터 게시
- ※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생활 속 지구살리기 실천행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나의) 불편함에 대해 토론해 보기
- ※ 토론수업 내용을 정리하여 우리 학급 실천행동 3가지 정하여 게시하고, 약속 지키기

4. 나의 실천 다짐

- ※ 초등학생 대상 강의를 진행 할 때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설명하기

제안27

1. 제안명(주제)

아나바다 활동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초등학교를 다닐때 해왔던 아나바다 활동을 지금도 시민들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3. 제안 내용

현재 당근마켓에서도 중고거래가 되고 있는데 조금 더 활성화하여 시 자체적으로도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서로 거래하게 하며 포인트를 모아 이 걸로 지역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지역내의 가맹점을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4. 나의 실천 다짐

창원시의 기관에서 종이 타올을 사용하지 않고 손수건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보았는데 저도 앞으로 손수건을 사용하여 조금 더 환경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28

1. 제안명(주제)

청소기 돌리는 횟수를 줄이기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어느 가정이건 청소기를 돌리지 않는 가정은 없다. 청소기를 돌리면 층간소음도 발생하고, 전기도 쓰인다. 예전에 청소는 빗자루와 물걸레로 이루어졌다. 빗자루를 이용하고 걸레로 바닥을 닦는 생활을 하면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각 가정의 적은 양의 전기가 모이면 큰 양이 된다. 탄소를 줄이는 가벼운 실천이라고 본다.

3. 제안 내용

- 청소기를 점차적으로 사용 횟수를 줄여, 한 달에 한 번 청소기 돌리기
- 건강하게 청소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유튜브로 공유하기
- 비질과 걸레질을 하면서 운동도 되는 방법을 찾아 공유하기

4. 나의 실천 다짐

- 저는 청소기대신 빗자루를 이용하고, 걸레를 이용할 것입니다.
- 일주일에 한 번은 육류가 없는 식단으로 생활하겠습니다.
- 이메일 정리를 꾸준히 하여 데이터 보관으로 인한 탄소발생을 줄이겠습니다.

제안29

1. 제안명(주제)

진해 내수면양식연구센터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활성화 방안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어른이나 아이들이 물고기 종류나 천연종 외래종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진해에는 내수면공원이라는 아담한 공원도 조성되어있고, 바로옆에 양식물고기를 연구하는 센터가 있지만 홍보나 이용에 대한 소개가 부족한 편입니다.

3. 제안 내용

내수면양식연구센터 생태학습관 견학홍보 및 양식물고기, 민물고기, 바닷물고기에대한 교육활성화 개인이나 학교, 단체등에서 견학하고 공부할수있는 프로그램이 신설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4. 나의 실천 다짐

물고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외래종보다 제철 물고기를 이용하겠습니다.

제안30

1. 제안명(주제)

주변의 자연과 곤충을 관찰하고 느끼고 소중함을 알자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창원의 공원과 마을 도서관이 잘 조성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자연과 곤충을 알아보고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3. 제안 내용

창원은 곳곳에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도서관도 곳곳에 있습니다. 마을 도서관에서 지역의 문화센터 역할 섬티 역할로 방향잡이가 되어 학교를 쉬는 날 아이들과 보호자 한 분씩을 접수 받아 눈에 보이는 곤충을 관찰하고 그림으로 그려보고 도서관에 돌아와 그린 곤충이 사는 곳, 먹이, 곤충의 특징 등을 더 자세히 책으로 찾아보는 활동을 하고, 시를 지어보거나 곤충을 그려보거나 소개하는 글을 씁니다. 주기적으로 활동 내용물들로 곤충전시회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년에 한 번 잘 그려진 곤충을 선정하고 재활용 수첩 표지로 하여 참여자에게 배부합니다.

4. 나의 실천 다짐

곤충을 소중한 개체로 생각할 것입니다. 곤충을 함부로 죽이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세상에 나쁜 곤충은 없다> 책을 추천해 줄 것입니다.

제안31

1. 제안명(주제)

용기내~! 용기!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코로나 사태로 인한 배달급증, 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 등 생활의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던 우리에게 전염병의 두려움까지 더해져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였다.

3. 제안 내용

SNS상에서는 용기내 챌린지가 활발히 진행중이며 구리시, 인천 계양구 전통시장 등에서도 용기내챌린지가 진행중이라 한다. 식사후 너무나 당연해진 카페방문에서 매장컵사용이나 텀블러사용, 식당에서 음식을 포장할때도 냄비나 용기를 가져올경우 창원시 차원에서 용기내 챌린지를 홍보하거나, 이용자들에게 스탬프를 찍어주거나 하는 활성화 방안이 많이 생겼으면 한다.

4. 나의 실천 다짐

뜨거운 음식을 일회용기에 담으면 환경호르몬 검출 걱정에서 자유로울수 없는것은 사실이다. 식당에서 음식을 포장할때 냄비나 용기에 담아온다면, 일회용품 사용도 줄이고 환경호르몬 걱정도 없고, 배달원의 수고도 아낄수있는 1석 3조효과임을 생각하며 용기내 챌린지에 동참하고자한다.

제안32

1. 제안명(주제)

물건을 살 때 쓰레기는 안살래요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과대포장문제가 심각해요

3. 제안 내용

물건을 판매할 때 포장용지를 적게 쓸 수 있게 해주시고 마산 어시장 같은곳에서도 일회용 비닐 보다 다회용기가 많이 사용 될 수 있도록 시장 할머니들에게 인식 증진을 시켜주세요.

4. 나의 실천 다짐

SDGs 13번 기후변화에 심각성을 알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만들지 않겠습니다

2021 SDGs
시민온라인 독서 교육
'읽고 제안하기'

Part 4.

우수 제안 선정 회의



Part 4. 우수 제안 선정 회의

회의개요

- 일 시 : 2021. 12. 16(수) ~ 20(월)
- 진 행 : 서면으로 진행(회의자료 송부 후 서면의견서 취합)

심사자 명단

연번	성 명	소 속	직위
1	이명숙	사)경남여성교육연구원	사무국장
2	안명선	지속가능미래연구소	원장
3	유현석	창원YMCA	사무총장
4	이찬우	강림환경연구원	기획부장
5	박경숙	창원마을공동체네트워크 자원순환마을분과	분과장
6	이종훈	창원시	기후환경정책관

심사 기준표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총 점			100
제안 평가	타 당 성	제안내용의 타당성 - 규모, 추진방향, 지속가능성 등	25
	실행가능성	구체적인 실현가능성 (추상적인 제안 제외)	25
	독 창 성	타시도와의 차별성과 창원시에 맞는 독창성	25
	공 익 성	주민수혜, 편의증진, 주민참여	25

SDGs 시민온라인 독서 교육
'읽고 제안하기'

Part 5.

도서 선정 회의



Part 5. 도서 선정 회의

회의개요

○ 일 시 : 2021. 09. 27.(월) 16:00 ~ 18:00

○ 장 소 : (주)해맑음

참석자 명단

○ 참 석 : 총 6명의 위원 중 6명 참석

○ 사무국 : 김연옥 팀장, 윤한진 간사

연번	성명	소속	직위	참석
1	이명숙	(사)경남여성교육연구원	사무국장	○
2	안명선	지속가능미래연구소	원장	○
3	유현석	창원YMCA	사무총장	○
4	이찬우	강림환경연구원	기획부장	○
5	박경숙	창원마을공동체네트워크 자원순환마을분과	분과장	○
6	이종훈	창원시	기후환경정책관	○

회의 결과 정리

○ 연령별(초등저, 초등고, 청소년, 일반) 필독도서 18권 선정

○ 참가인원 100명 외에도 제안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예정

회의사진



2021 SDGs
시민온라인 독서 교육
'읽고 제안하기'

Part 6.

'읽고 제안하기'
참여자 명단



Part 6.

'읽고 제안하기' 참여자 명단

연번	아이디	도서명
1	minkunb	코끼리를 타면 안 돼요?
2	sarahoh	나무의 언어
3	unhasu1020	나무의 언어
4	kyhong0910	세상에 나쁜 곤충은 없다
5	book2310	지구 한계의 경계에서
6	tnghls777	하늘이 딱딱했대?
7	yon65269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
8	ko920902	세상에 나쁜 곤충은 없다
9	rossee22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
10	suin01	하늘이 딱딱했대?
11	alicemo	지구를 구하는 쓰레기 제로大作전
12	wide14	지구를 구하는 쓰레기 제로大作전
13	wide12	그레타 툰베리가 외쳐요!
14	wide76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
15	snm80	환경과 생태 쫓아는 10대
16	snm801	내 스마트폰이 아프리카에 있대요
17	childmisu	쇠나우 마을 발전소
18	seojin09	세상에 나쁜 곤충은 없다
19	hujg14	지구 한계의 경계에서
20	lspink	코끼리를 타면 안 돼요?
21	ddalgi5905	환경과 생태 쫓아는 10대
22	ekdekddl	공기 파는 사회에 반대한다
23	yhj703	바닷마을 인문학
24	whitehappi	지구를 살리는 기발한 물건 10
25	sdkorea	바닷마을 인문학
26	herb1209	나무의 언어
27	halang0507	코끼리를 타면 안 돼요?
28	whitepia82	이러다 지구에 플라스틱만 남겠어
29	dahye1222	환경과 생태 쫓아는 10대
30	belief59	내 스마트폰이 아프리카에 있대요
31	jerry302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
32	joy8947	쇠나우 마을 발전소

33	vohonet	바닷마을 인문학
34	yea122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
35	newenew	공기 파는 사회에 반대한다
36	gmldi214	나무의 언어
37	malgeulson	지구 한계의 경계에서
38	bangvirus	세상에 나쁜 곤충은 없다
39	esc1125	나무의 언어
40	follow1	나무의 언어
41	uni5838	바닷마을 인문학
42	ghgh6459	이러다 지구에 플라스틱만 남겠어
43	madonna282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
44	bormdal	지구를 구하는 쓰레기 제로大作전
45	duddhr20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
46	kysyokr	나무의 언어
47	kang1125	나무의 언어
48	djwlsdl95	지구를 살리는 기발한 물건 10
49	unfriend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
50	gloryinwoo	세상에 나쁜 곤충은 없다
51	agjskdud	지구의 내일을 부탁해
52	agjtpgh	지구를 살리는 기발한 물건 10
53	agjdnjsgh	지구 한계의 경계에서
54	jrsimh	이러다 지구에 플라스틱만 남겠어
55	lks3930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
56	goddns2021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
57	jscchung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
58	b612kmj	지구를 살리는 기발한 물건 10
59	rotic22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
60	ggriya	지구 한계의 경계에서
61	sehyen	공기 파는 사회에 반대한다
62	qutesuni	지구 한계의 경계에서
63	baduck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
64	jina3430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
65	xuehua88	공기 파는 사회에 반대한다
66	hsbaek8728	바닷마을 인문학
67	hajin0207	나무의 언어
68	jjwook312	나무의 언어

**2021 SDGs
시민온라인 독서 교육
‘읽고 제안하기’**